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형식분류와 편년

-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

이승현 (충남대학교)

1.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원형점토대토기문화(圓形粘土帶土器文化)는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여 흑도장경호(黑陶長頸壺), 파수부토기(把手附土器), 두형토기(豆形土器), 한국식청동기(韓國式靑銅器),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 등으로 구성된 문화를 말한다. 중국 동북지역의 이주민에 의해 성립된(박순발 1993) 원형점토대토기문화는 한(韓)의 성립, 주조철부(鑄造鐵斧) 및 삼각형점토대토기(三角形粘土帶土器) 등을 표지로 하는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와 문화적 연결고리를 가지면서도, 선행하는 역삼동(驛三洞)·송국리(松菊里)·천전리(泉田里) 유형(類型) 등의 청동기시대 중기 문화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사(先史)와 원사(原史)를 이어주는 전환기적인 문화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형식분류(型式分類)와 편년(編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기존 연구는 점토대토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형식분류를 실시하고, 그 변천과정에 따라 각 시기별 세부편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박진일 2000; 김범철 2001; 서길덕 2006; 임설희 2010; 이정은 2011; 구숙현 2019).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점토대토기만을 대상으로 형식분류를 실시하고 있어, 같이 출토되는 유물에 대한 공반관계(共伴關係) 검증이 소홀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의 경기·충청·전북의 중서부지역(中西部地域)을 대상으로 하여,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유물에 대한 형식분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공반관계를 통하여 편년을 설정하고자 한다. 대상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유구석부(有溝石斧), 석제검과두식(石製劍把頭飾)이다. 이후 형식분류한 유물 간의 공반관계를 통하여 각 유적에 대한 시기설정(時期設定)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형식분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적 의미가 있는 완형개(碗形蓋)와 한국식청동기를 포함시킨다. 이러한 시기설정에 있어 무덤과 취락(聚落)은 각기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무덤과 취락의 출토 유물이 상이하여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덤과 취락의 시기설정을 종합하기 위해 두 유적 간에 공반되는 유물을 통해 교차편년(交差編年)을 실시하고, 절대연대를 부여하고자 한다.

2.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유물의 형식분류

원형점토대토기는 구연부 형태(I, II), 동체 형태(胴體 形態, A1, A2, B1, B2), 저부(底部)의 유무(a,b)를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조합하여 I A1a식, I A2a, I A2b식, I B1a식, I B2a식 5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원형점토대토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체의 형태가 세장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준다(I A→I B). 구연부 II형의 경우 다른 속성과의 유의한 조합이 되지 않았다.

흑도장경호는 경부 형태(頸部 形態 A,B)와 동체 형태(1,2,3)를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조합하여 A1, B1, B2, B3식 4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대개 동체는 구형(A)에서 편구형(B)으로, 경부는 직립하다가, 변곡점이 구연부에서 점차 경부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레 外反하는 형태(1→3)로 변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파수부토기는 동체에 달린 손잡이가 시간적으로 민감한 속성으로(이백규 1974; 박진일 2007), 그 형태에 따라 크게 환형(環形)파수와 우각형(牛角形)파수로 분류할 수 있다.

두형토기는 배신부(杯身部) 아래의 대각(臺脚)이 시간적으로 민감한 속성으로, 대각의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곧게 올라가는 것에서 나팔형으로 변화한다(서길덕 2006; 심수연 2011). 이러한 변화에 따라 크게 단각(短脚)두형토기와 장각(長脚)두형토기로 분류하였다.

유구석부는 구하부(溝下部)와 등면(背面)의 형태가 시간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배진성

2001; 이형원 2011), 구하부가 사선이면서 등면이 직선인 것을 A식, 구하부와 등면이 모두 직선인 것을 B식으로 분류하였다.

석제 검파두식은 형태에 따라 침형(枕形), 산형(山形), 입주형(立柱形)으로 분류하였다(미야자토 오사무 2010).

기타 형식분류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의미가 유물로 완형개와 한국식청동기가 있다. 먼저 완형개는 굽과 같이 생긴 손잡이가 있는 토기이다. 대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에서도 늦은 단계에 공반하는 유물로 알려져 있고(김범철 2001), 주로 유행하는 시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이재현 2004)이다. 한국식청동기는 세형동검(細形銅劍), 선형동부(扇形銅斧), 조세문경(粗細紋鏡), 검파형동기(劍把形銅器), 나팔형동기(喇叭形銅器), 방패형동기(方牌形銅器) 등이 있다. 여기서 세형동검을 제외한 유물들은 한국식청동무기인 동과(銅戈)와 동모(銅矛)가 등장하기 전에 소멸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유의한 유물이다(이건무 1994).

그 외에도 원형점토대토기의 경우에 구연부 단면형태가 타원형인 것과 외반구연이 뚜렷한 시간적 속성을 지닌다. 취락의 경우 완형(完形)의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속성도 시간적 속성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3.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시기구분과 편년

3.1 무덤의 시기구분과 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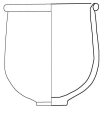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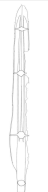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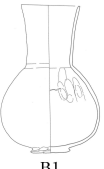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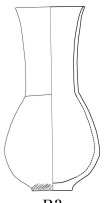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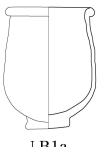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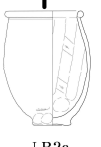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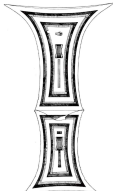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무덤의 경우 기년명(紀年銘)이 존재하는 유적의 흑도장경호와 동일 형식이 공반(共伴)되는 유적 간 비교를 통해 시기설정을 할 수 있다. 흑도장경호는 동체형태가 원형(A)→편구형(B)으로, 경부가 직립하는 것에서 변곡점이 구연부에서 점차 경부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레 외반(1→3)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본고의 분류안으로는 흑도장경호 A1, B1, B2, B3식이다. 이를 통해 무덤은 총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먼저 흑도장경호 A1식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평양 신성동 유적(平壤 新成洞 遺蹟)이 있다. 본 유적에서는 흑도장경호와 함께 후기비파형동검(後期琵琶形銅劍), Z자문 다뉴조문경(Z字紋 多鈕粗紋鏡), 침형 검파두식 등이 공반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후기비파형동검과 Z자문 다뉴조문경은 정가와자 6512호묘와 유사하다(서길덕 2018). 정가와자 6512호묘는 점토대토기문화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유적이기 때문에 흑도장경호 A1식이 공반되는 유적들은 가장 이른 단계인 1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흑도장경호 B1식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김천 문당동 1호 목관묘(金泉 文唐洞 1號 木棺墓)가 있다. 여기서는 흑도장경호B1식과 함께 후기비파형동검, 원형점토대토기 등이 공반되었다. 이 유적의 후기비파형동검은 흑도장경호 A1식이 출토된 평양 신성동 유적의 것보다 형식학적으로 한단계 늦은 것이다(中村大介 2008). 따라서 흑도장경호 B1식이 출토되는 유적들은 2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흑도장경호 B2식과 B3식이 공반된 유적들에서는 세형동검 등의 한국식청동기가 출현한다. 그중 예산 동서리 유적(禮山 東西里 遺蹟)에서 흑도장경호 B3식과 함께 다수의 세형동검, 조세문경, 방패형동기, 나팔형동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이 곳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1점이 주목된다. 이 동검은 신성동 유적과 형태가 유사한 비파형동검임에도 불구하고 세형동검의 특징인 절대(節帶)와 결입부(挾入部)가 나타난다(허준양 2020). 이는 세형동검이 비파형동검과 문화적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세형동검의 마연기법이 후기비파형동검보다 후행하여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흑도장경호 B2·B3 모두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흑도장경호는 A1→B1→B2·B3식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단계별 공반유물을 설정해보면 1단계에는 흑도장경호 A1식이 원형점토대토기 I A1a식·I A2a식, 침형의 검파두식과 공반된다. 2단계에는 흑도장경호 B1식과 산형의 검파두식이 새롭게 등장하며, 원형점토대토기 I A1a식·I A2a식이 지속된다. 3단계에는 흑도장경호 B2·B3식과 원형점토대토기 I B1a식, I B2a식, 한국식청동기가 공반관계를 이룬다(그림1).

형식 시기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검과두식	청동기			
					동검	이형동기		
1단계	 A1	 I A1a	 I A2a	 점형				
2단계	 B1			 산형				
3단계	 B2	 B3	 I B1a	 I B2a	 세형동검	 다뉴문경	 검파형동기	 나팔형동기

【그림 1】 중서부지역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무덤 편년표(S=1/3)

3.2 취락의 시기구분과 편년

【표 1】 안성 반제리 유적 유구 중복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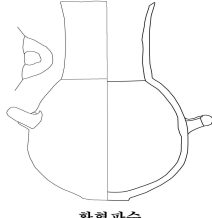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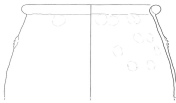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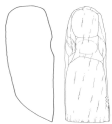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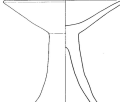


先 호수	後	
	호수	호수
환호	6호	5호
	10호	9호
	12호	-
15호	16호	-
20호	19호	
21호	22호	
24호	23호	
32호	31호	
39호	38호	
49호	48호	47·51호
57호	53호	52호
	54호	53호
	55호	-
	56호	

취락의 경우 기년명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유구 간 중복관계를 통해 시기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안성 반제리 유적에서 주거지 72기, 환구 등 많은 유구가 확인되었고, 중복관계가 확인되는 유구도 풍부하기 때문에 본 유적의 유구 간 중복관계를 통해 각 유물의 시기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유적별 세부편년을 실시하고자 한다.

안성 반제리 유적의 유구 중복관계는 환호, 49호, 57호가 3개 유구와 중복관계를 형성하고 있어(표1) 취락도 무덤과 같이 3개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관계를 통해 각 유물의 공반관계와 시기설정을 한 것이 【그림2】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1단계에는 환형파수만, 2단계에는 우각형파수, 단각두형토기, 유구석부 B식이 공반된다. 그리고 3단계에는 여기에 장각두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 그리고 완형개가 추가된다.

이러한 유물의 시기설정을 바탕으로 중서부지역 취락 유적의 각 단계별로 설정하면, 1단계에는 남양주 수석리 유적, 안성 반제리 유적, 보령 교성리 유적 등이 있고, 2단계는 서울 대모산 유적, 인천 검단 유적, 연기 합강리 생줄 유적 등이 있다. 3단계 유적으로는 파주 와동리Ⅳ 유적, 화성 동학산 유적, 아산 풍기동 앞골 유적, 전주 평화동 대정Ⅳ 유적 등이 있다.

형식 시기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완형개	유구석부
1단계	 완형파수				
2단계	 우각형파수	 단각두형토기	 타원형점토대토기		 B식
3단계		 장각두형토기	 외반구원형점토대토기		

【그림 2】 중서부지역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취락 편년표(S=1/3)

3.3 무덤과 취락의 교차편년

이상의 시기편년에서 볼 수 있듯이, 무덤은 주로 흑도장경호와 완형의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 것에 비해 취락은 무덤에서 출토되지 않는 파수부토기와 두형토기가 주로 공반되고, 원형점토대토기는 구연부편만 출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반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유적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유물이 필요하다. 수량은 적지만, 일부 취락 유적에서 흑도장경호가 출토되고 있어 이를 지표로 교차편년을 해볼 수 있다. 먼저 남양주 수석리 6호 주거지에서 흑도장경호 A1식이 출토되었다. 흑도장경호 A1식은 무덤의 1단계에 출토되는 것으로, 동 3호 주거지에서 환형파수가 출토되고 있어 무덤과 취락의 1단계를 동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화성 정문리 이중환호에서는 우각형파수와 함께 흑도장경호 B1식이 출토되었다. 흑도장경호 B1식은 무덤 2단계에 출토되는 것으로, 환호에서 공반되는 우각형파수가 취락의 2단계부터 출토되는 유물이기 때문에 무덤과 취락의 2단계도 동시기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주 평화동 대정Ⅳ 9호 주거지에서 흑도장경호 B2가 출토되었다. 흑도장경호 B2는 무덤 3단계에 출토되는 것으로, 동 6호 주거지에서 장각두형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무덤과 취락의 3단계 또한 동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흑도장경호의 각 형식을 통해 절대연대를 부여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흑도장경호A1식이 출토된 평양 신성동 유적과 거의 동시기인 정가와자 6512호묘가 춘추시대 후기로 편년되므로(서길덕 2018), 기원전 6세기 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2단계는 흑도장경호 B2식이 공반된 김천 문당동 유적의 후기비파형동검이 신성동 유적의 것보다 형식학적으로 한단계 늦으므로(中村大介 2008), 기원전 500-400년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흑도장경호 B2식과 B3식이 공반되는 유적들이 비파형동검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한국식청동기와 공반되고 있으므로, 기원전 400-300년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유물 중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두형토기, 파수부토기, 유구석부, 석제 검과두식을 대상으로 하여 형식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덤과 취락에 대한 편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덤과 취락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1단계는 기원전 6세기 후반, 2단계는 기원전 500-400년, 3단계는 기원전 400-300년으로 비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년안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구조, 생업경제, 장송의례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해석하는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